

주변약사들 의견도 경영 정보-학술 강화 요구가 컸다

복약지도매뉴얼 등 색션화 ... 약사공론 혁신 노력이 보이기는 하는데...



약사공론 지령 4000호라... 주 2회 발간하는 신문이 4000번째면 도대체 햇수로 몇 년 되는 건가 얼른 계산해보니 대략 1년에 100회에 연수로 4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시절 강의실 복도에 꽂혀있던 신문을 가끔씩 들춰보던 기억이 있으니 오래 전부터 함께했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40년이나 됐을 줄이야...

서울 송파구 새독일약국

전 미 속 약사의 **쓴** 소리

그동안 약사회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지로서 칭찬도, 때론 본의 아니게 대약집행부만의 나팔수라는 비난도 들었을 터. 한약분쟁 땀 오도된 국민여론 때문에 약사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의약분업 같은 엄청난 지각변동의 시기에는 약사들을 대변하면서 함께 해왔던 그 세월들이 스쳐지나간다.

작년엔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공적자금(?)을 걷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풍상을 깨끗하게 견뎌낸 모습이 새삼 대견스럽고, 툭툴거리면서도 함께 지켜낸 약사사회에 슬그머니 자긍심까지 느껴진다. 검문이 일천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만한 연륜에 이만한 지령을 갖춘, 6만여 독자를 가진 전문지는 세계적으로도 흔치않지 싶다.

하지만 이실직고하자면 난 열혈애독자는 아니다. 약국이 바쁠 때면 슬그머니 밀쳐놔다가 빠른 인터넷 뉴스에(물론 약사공론도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눈길을 뺀 건 적도 많았다.

약사공론을 애독하는 많은 약사님들 중엔 아직도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탓에 말 그대로 '뉴스'를 위해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점점 비중이 빠른 '뉴스'보다는 기획기사 같은 '알찬 정보' 쪽에 더 많이 기울어 가는 느낌이다. 실제로 몇몇 약사들에게 물었을 때 내 약국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변동사항을 정리하려고 본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바라는 사항 역시 약국경영이나 학술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뤄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몇 달 전부터 약사공론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복약지도 매뉴얼'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변화된 약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뭐라 해도 약사공론은 학술지가 아닌 신문이다. 회원 입장에서 정책을 견제하고 때론 감시하

는 언론이다.

작년, 적자해소 문제로 약사공론이 도마위에 올랐을 때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 중 하나는 경영이 광고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광고주인 제약사의 입장에서부터 편집권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편집권의 독립은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최근 들어 종이의 질부터 내용, 편집방향까지 약사공론이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객원기자 제도를 통해 일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신선하다.

그러나 기사가 아닌 정책이나 홍보에 대한 내용은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대한약사회 정책을 기획하거나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직접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지령은 신문의 나이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뉴스적 가치와 자료가 많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약사공론에도 지령 4000호의 연륜만큼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누적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사공론은 약사들이 만든 신문이다.

서로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지령 4000호를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不惑)의 나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이다. 어느 분이 말하길 뒤집으면 그만큼 유혹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디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10년 뒤, 5000호에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지천명(知天命)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약사공론 지령 4000호를 축하한다.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고 숙 희

고 문 박 옥 규
고 문 정 기 화
총 무 박 송 이

고 문 이 문 향
고 문 정 연 택
총 무 김 현 희

고 문 송 화 섭
고 문 성 수 자
총 무 조 명 복

외 동문일동